

아이들이
행복하면

마을이
행복하다

불암골
행복발전소

정영섭

홍영애

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공동대표

개요

위치	서울 노원구 중계로14길 53
용도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대지면적	469,00m ²
건축면적	270,08m ²
연면적	270,08m ²
건폐율	57.74%
용적률	57.74%
규모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기간	2014.8.~2016.4.
시공기간	2015.4.~2016.4.
설계	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건축주	노원구청



불암골 행복발전소 전경





불암골 행복발전소는
불암산 아랫자락까지
밀려온 아파트 사이에
겨우 남아 있는
저층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의 모양을 따라
실들을 배치하였다.
각각의 실들이 모여
한 건물이 되는 모습이
집집이 모여 마을이 되는
모습과 닮았다. 실의
모양을 따라
층고를 다르게 하고
지붕을 경사지게
계획하였다.

각기 다른 경사의 지붕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실





© HJ 02



© HJ 03

상 어느 곳에서도 바라보이는 중정
하 아이들이 뛰어노는 옥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북카페



© H
2016



© H
2016



© H
2016

상
중
하
풀인 돌봄교실
커뮤니티 마당
중정을 통해 연결되는 옥상

마지막까지 힘들고 지치지만
북카페 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한 것은
이분들의 만족이
주민의 만족이 되어,
살아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HJ
02

마을 중심, 주민 중심

2014년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되어 처음으로 공공건축물 지명 현상을 하게 되었다. 노원구 중계동 지역아동센터 신축설계 공모전은 아동센터와 북카페 두 프로그램을 같은 공간에 계획하여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자 기대하는 바였다.

대지는 불암산 아랫자락까지 밀려온 아파트 사이에 겨우 남아 있는 저층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아 작은 골목에도 항상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동네이다.

기존 대지는 3개 필지였다. 무허가 건축물 사이로 작은 지름길이 있었다. 주민들이 이 길을 통하면 돌아가야 할 거리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 지름길이 분명하다. 3개의 필지를 합치니 대지가 불규칙한 모양이 되었다. 북카페와 돌봄교실 2개, 사무실, 주방이 요구되었다.

대지의 모양을 따라 실들을 배치하였다. 각각의 실들이 모여 한 건물이 되는 모습이 집집이 모여 마을이 되는 모습과 닮았다. 실의 모양을 따라 층고를 다르게 하고 지붕을 경사지게 계획하였다. 철거 전 건물은 청소년 쉼터로 공공시설이긴 하였지만 주민에게 열린 공간은 아니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주민들은 북카페와 아동센터가 신축되는 것을 반겼다.

기존 건물이 1층이었고 예산과 쓰임을 고려해 규모는 동일한 1층으로 계획하였다. 인접 대지 입장에서 공공건축물이 신축되어 조망이나 채광에 피해가 생긴다면 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구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모와 용도에 민감하다. 1층 건물의 옥상은 주변 3~4층 건물에서 내려다보이니 제2의 입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옥상의 모습도 중요하게 계획하였다.

오후 내내 돌봄교실에서 지낼 아이들을 생각하니 야외 공간이 절실하였다. 중정을 중심으로 실을 배치하고 중정을 통해 옥상이 활용되도록 하였다. 중정의 슬라이딩 창호가 열리면 마주보는 두 복도는 한 공간이 된다. 실내와 실외가 구분 없이 이용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중정의 매력이다.

공모전에 당선된 후 작은 규모지만 구청장 보고를 두 번 하고 경관심의를 받았다. 설계자로서 다행스럽게도 당선안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구는 이미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몇몇 공공건축물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다. 건축가의 고집에 대해서는 피곤해 하였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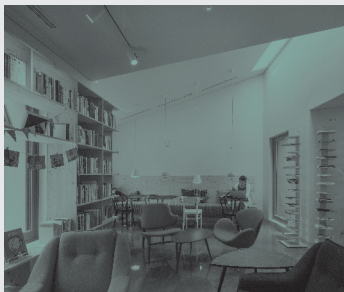
©moldproject



상 불암골 행복발전소 전경
중 별모양의 부정형 대지
하 각기 다른 경사의 지붕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실



12-10



상 돌봄교실
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북카페

주민의 요구에 민감한, 효과적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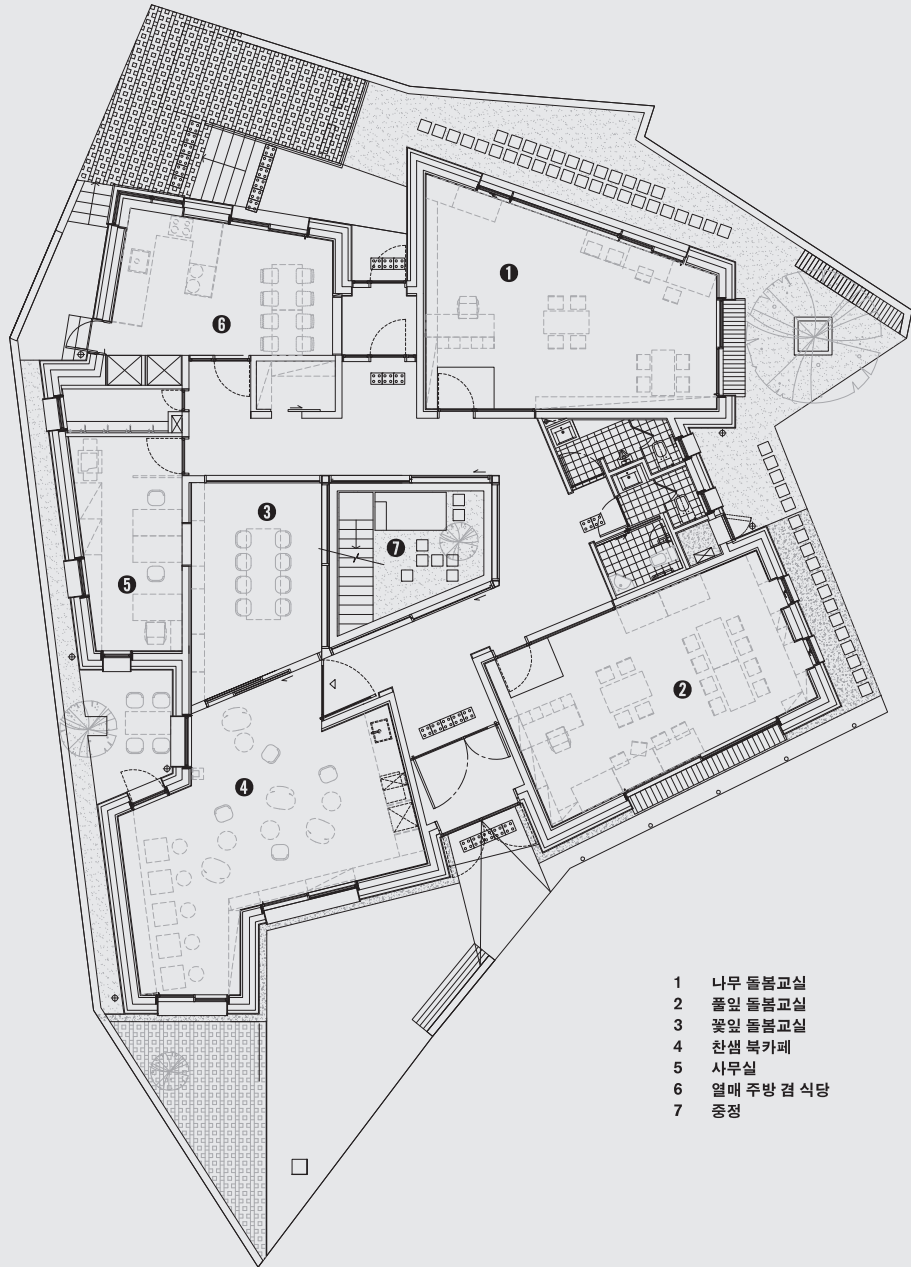
아파트 단지 안에는 법에 의한 최소한의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하지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많은 곳은 법적 규제가 없어 행정이 놓치면 주민이 공공의 서비스를 누릴 공간이 없게 된다. 구는 이런 주민의 요구에 현명하고 세심하게 대처하였다. 공유지를 활용해 토지 매입비용을 아끼고, 규모도 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였다(오히려 작은 규모로 진행하는 이유를 애써 설명해야 하였다). 작은 기획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부지매입에 어려움도 적다. 사업 기간도 비교적 짧아 주민의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운영 중인 아동센터·북카페를 방문하였다. 주관부서는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들도 높은 수준의 문화 욕구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불암골 행복발전소에는 공공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주민이 운영하는 북카페가 같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센터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항상 열려 있는 북카페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이지만 그 역할은 아주 다르다. 아동센터는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고, 북카페는 동네주민에게 쉽고 가깝게 문화를 제공한다.

공모전과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은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주관부서가 이미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아동센터와 북카페 운영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였다. 거기에 공사기간 중 감리를 하며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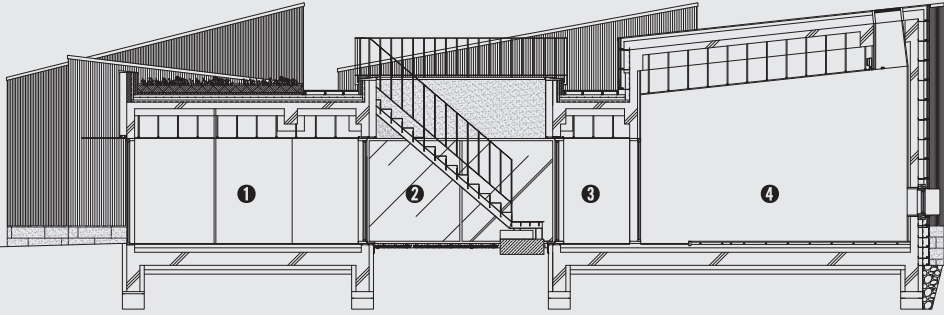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아동센터를 운영할 센터장과 돌봄 선생님, 북카페를 운영할 주민을 만나 구체적인 인테리어 설계를 할 수 있었다. 신나고 즐겁지만, 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실제 운영자와 세밀한 쓰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계획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당초 계획을 고쳐 나가는 것은 괴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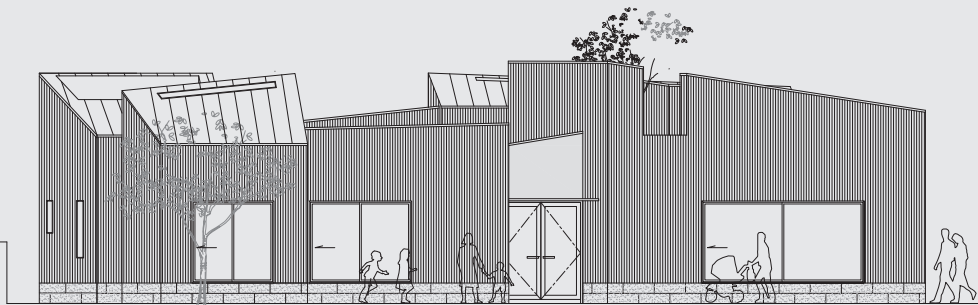
- 1 나무 돌품교실
- 2 풀잎 돌품교실
- 3 꽃잎 돌품교실
- 4 찬샘 북카페
- 5 사무실
- 6 열매 주방 겸 식당
- 7 중정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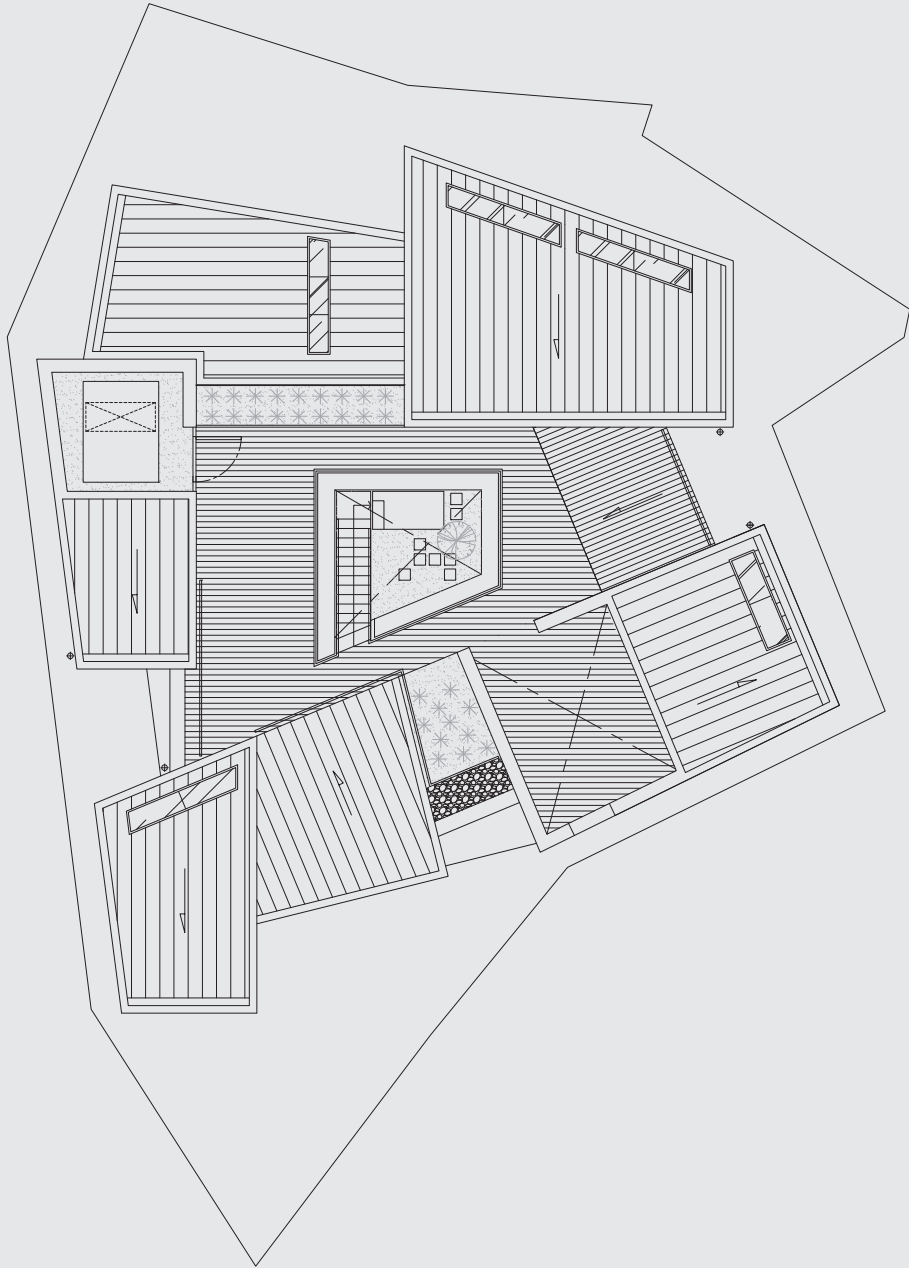
- 1 입구
- 2 중정
- 3 복도
- 4 나무 돌봄센터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



12-10



상 옥상과 중정
하 어느 곳에서도 바라보이는 중정

북카페는 정말 주민들이 운영한다. 바리스타도 없다. 바리스타가 없으니 접대하는 바(bar)도 필요 없다. 벽면으로 최소한의 카페를 구성하였다. 조작이 쉬운 자동 커피머신을 두고 음료도 냉장고에서 스스로 꺼내 마신다. 자신이 먹은 컵은 자신이 설거지하고, 커피값은 바구니에 낸다. 북카페를 운영하는 허선영 선생님은 “책을 읽는 공간이 먼저예요. 커피는 그 다음이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북카페 ‘찬샘’은 조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하고 진지하지만, 주민의 유쾌함과 즐거움도 가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노원구청에서 운영한다. 임리아 센터장을 비롯해 돌봄 선생님에게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의도를 설득하고 선생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인테리어 설계를 하였다. 우리는 센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동네 어른들의 돌봄과 눈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골목길 쪽과 복도 쪽 벽면에 큰 창호를 계획하였다. 창턱에 의자와 텃마루를 계획해 지나가는 주민들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를 받고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랐다.

하지만 아동센터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었다. 운영 방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통해 보완하였다. 이런 점이 설계자와 운영자가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생기는 아쉬움이다. 그래도 설계자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공공의 가치, 주민의 가치

가끔 설계자의 계획과는 다르게 무단으로 증축되거나 외관이 변경된 공공건축물을 볼 때가 있다. 이런 일이 사용자의 건축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일까? 설계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득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이것이 공공건축물 운영자를 설계에 우선하여 선정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중요하게 제안한 부분이 있다. 간판과 그래픽 계획을 전문 디자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었다. 공공건축물의 마지막 완성도는 조명·간판·조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면 설계자가 애써 고민한 부분이 망가져 버린다.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우리의 설계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였다. 디자이너가 추가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불암골 행복발전소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폰트도 디자인하였다.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전화가 온다. 간판과 사인, 폰트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다. 작은 제안과 노력으로 공공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더 좋은 일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주민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힘들고 지치지만 북카페 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한 것은 이분들의 만족이 주민의 만족이 되어, 그래야 살아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암골 행복발전소 북카페 찬샘은 주말에도 문이 열려 있다. 금요일 저녁 독서모임을 위해 마당에 조명을 달았다. 행정이 운영하면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운영자가 이런 흥겨운 제안을 하면 설계자는 좋은 조명을 달면 된다.

첫 공공건축물을 완공하였다. 우리가 설계한 건물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자에 편한 자세로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분들과 편하게 어울려 앉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 2016



상 커뮤니티 마당
하 아이들이 뛰어노는 옥상